

비 치료목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치아교정과 양악수술에 대한 일부 대학생들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강미현 · 이은숙 · 이천희¹ · 김선숙²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 안동과학대학교 치위생과¹ ·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²

Non-therapeutic purposes in orthodontics and correction of tooth and jaw surgery for the recognition of some students on research

Mi-Hyun Kang · Eun-Sook Lee · Cheon-Hee Lee¹ · Sun-Sook Kim²

Dep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 ¹Dept. of Dental Hygiene, Andong Science College · ²Dep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College.

Received : 30 October, 2012
Revised : 22 December, 2012
Accepted : 25 December, 2012

Corresponding Author

Eun-Sook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214 Daehangno, Gimcheon-city,
Gyeongsangbuk-do 740-704, Korea
Tel : +82-17-533-5788,
Fax : +82-54-420-4465,
E-mail : esuggi@naver.com

ABSTRACT

Objectives : In this study, the treatment method for some college students, due to the misuse of non-therapeutic molding technique non-therapeutic procedure is applied in orthodontics or jaw surgery and therapeutic purposes, such as to properly recognize and to investigate whether.

Methods : In this study used, 4 questions, the questionnaire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major, whether the treatment experience and purpose) Orthodontic and knowledge about the jaw surgery (Corrective jaw surgery hope and reason, or jaw surgery benefits, side effects, etc.) 6 items, calibration and recognition jaw surgery on seven items 17 items was constructed.

Results : Of the perception of the majors of the respondent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non-therapeutic procedure for calibration or jaw surgery the correct way, and the purpose appeared to know roughly majors and all students major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1$).

The degree of recognition for non-therapeutic procedures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respondents' facial aesthetic improvement, and the most common reason, you want to make a non-therapeutic procedure, correction or contrast, I've found that looks supremacist influence on the non-therapeutic procedure or roughly know the correct way, and jaw surgery for the purpose that appear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5$).

Conclusions : Non-therapeutic procedure for the interest and knowledge to promote oral health as well as esthetic improvements to the original non-therapeutic procedure for therapeutic purposes and how to deliver education and it is very important.

Keyword : orthodontic, esthetics, orthognathic surgery

색인 : 교정, 미용, 악 교정 수술

1. 서론

현대생활의 시각적 대중매체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평가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생활의 첫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시작되고 처음 만남에서 가장 먼저 개인의 개성과 특성이 보여 지는 부분은 외모이다. 개인의 평가요소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는 단순한 자기만족을 넘어서 자기정체감 형성이나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¹⁾. 특히, 안면부는 사람의 첫인상을 평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로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좋은 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면부 즉, 얼굴의 눈과 코 그리고 입모양이 주는 느낌의 중요도는 각자가 다를 수 있으나 구강 악안면의 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특히, 입모양을 결정짓는 요인 중 부정교합의 경우 과거에는 치아교정이 최선의 치료방법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치아교정 뿐만이 아닌 안면 비대칭이나 주걱턱, 돌출 입 등 전체적인 안면윤곽을 개선하기 위한 악 교정 수술이 늘어나고 있다²⁾. 악 교정 수술은 상악골이나 하악골의 성장이 정상에서 벗어나 과잉, 부족, 혹은 비대칭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형태와 크기의 변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술로 과거에는 정면이 넓고 통통한 얼굴이 선호되었으나, 최근에는 부드럽고 가름한 계란형을 원하고, 또한 한국인의 안면 특징 중의 하나인 전방에 돌출된 하악 전돌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³⁾. 이러한 악 수술의 동기는 심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능장애에 따른 선택도 중요한 것으로, 정과 남⁴⁾은 양악수술의 동기는 추형안모개선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능적 문제 개선이 23.6%로 그 다음이었다고 하였으며, Jensen⁵⁾은 심리적 사회적인 이유로 악 교정 수술을 하며 대부분 기능 및 심미적 향상을 원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정치료에 관한 연구에서 Albino와 Tedesco⁶⁾는 교정치료를 받은 아동군에서 자기상(self-image),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기인식(self-perception) 등 사회적인 행동 등이 개선되고 치료를 받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자신이 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Rutzen⁷⁾은 교정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용모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치아와 안면골격은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치아교정과 악 교정 수술을 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에 개선된 외모의 만족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자기만족감과 긍정적인 자아형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치료적 술식인 치아교정이나 양악수술은 부정교합, 양악돌출 및 주걱턱 또는 심한 순구개열 등에 의한 안면기형을 가진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인 현상과 함께 극적인 이미지 변화를 추구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여고생의 62.8%가 비 치료적인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원하고 있다고 하였다⁸⁾. 그리고 전⁹⁾과 김¹⁰⁾의 연구에서도 성인 남녀 4명 중 1명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한 경험이 있으며, 효도 성형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 치료적인 미용성형은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으나 많은 매체와 무분별한 홍보를 통해 본래의 치료목적이 점차 훼손되어 미용목적의 성형술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비 치료적 성형술식의 오용으로 인해 비 치료술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치아교정이나 양악수술에 대한 시술방법 및 치료 목적 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1년 10월 4일부터 10월 16일 까지 G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치위생학과에 포괄 치위생 관리 및 처치를 위하여 방문한 310명 중 보건의료계열 학생 총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치위생학과와 치기공학과 학생그룹의 구강보건관련 전공자(130명)와 구강보건관련 비전공자(120명)로 나누어 제작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 기입 방식으로 응답한 후 회수하였고 최종 연구대상은 미완성된 설문지를 제외한 구강보건관련 전공자(129명)와 구강보건관련 비전공자(114명)로 총 243명이었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도구는 선행연구¹¹⁾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 후 작성하였다. 설문문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성별, 전공여부, 치료경험 및 목적 등) 4문항, 치아교정 및 양악수술에 관한 지식(교정 또는 양악수술 희망여부 및 이유, 양악수술 장점, 부작용 등) 6문항, 교정 및 양악수술에 관한 인식 7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 자료 분석 방법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 치료 술식에 대한 인식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성별, 전공여부에 따른 치료경험 유무와 비 치료 술식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식도 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별, 전공별에 따른 비 치료 술식에 대한 인식정도와 교정 또는 양악수술 치료 경험 유무에 따른 비 치료 술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 120명(49.4%), 여학생 123명(50.6%)으로 나타났고, 전공자는 129명(53.1%)으로, 비전공자 114명(46.9%)보다 많았으며, 비 치료적 술식을 경험한

대상자는 48명(19.8%)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비 치료적 술식의 치료목적은 ‘양악돌출 및 주걱턱 치료’ 15명(6.2%), ‘심미적 효과증진’ 14명(5.8%), 그리고 ‘없음’ 202명(83.1%)으로 응답하였다(Table 1).

3.2. 연구대상자의 성별, 전공별에 따른 치료경험 유무

전공여부 및 치료경험 유무는 성별에 따른 전공여부에서 전공자 남학생 55.0%, 여학생 51.2%으로 나타났고, 비전공자 남학생 45.0%, 여학생 60명 48.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치료경험 유무는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17.5%, 여학생은 22.0%으로 치료경험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3.3. 연구대상자의 비 치료 술식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식도

비 치료 술식으로 교정 또는 양악수술을 생각하는 이유로는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41.2%(100명), ‘기타(취업준비) 39.1% 순으로 많았고, 향후 양악수술 희망여부에서는 31.7%가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group

Variables		N	%
Gender	Male	120	49.4
	Female	123	50.6
Major	Dental health science	129	53.1
	Other major	114	46.9
Non-therapeutic procedure experience	Yes	48	19.8
	No	195	80.2
Non-therapeutic procedure for therapeutic purposes	Treatment - jaw protrusion and chin up	15	6.2
	Aesthetic effect of promoting	14	5.8
	Seamless communication	5	2.1
	Gastrointestinal disorders overcome	2	0.8
	Any other purpose	5	2.1
	No	202	83.1
Total		243	100.0

Table 2. The study group of major and treatment-experienced presence

Variables	Gender		Total	
	Male	Female		
Major	Dental hygiene	66(55.0)	63(51.2)	129(53.1)
	Other major	54(45.0)	60(48.8)	114(46.9)
Treatment-experienced	Yes	21(17.5)	27(22.0)	48(19.8)
	No	99(82.5)	96(78.0)	198(80.2)
Total		120(100.0)	123(100.0)	243(100.0)

Table 3. Consideration on the subjects of non-therapeutic procedure of the study group

Variables		N	%
Why did you think about the jaw surgery or correction	Family and friends of the recommendations	29	11.9
	Treatment subjects	19	7.8
	To be more beautiful	100	41.2
	Etc.	95	39.1
Jaw surgery hope	Yes	77	31.7
	No	166	68.3
Why did your jaw surgery	Costs	32	13.2
	Side effect	19	7.8
	Acquaintances of the gulf stream	7	2.9
	Medical Accidents	15	6.2
	Change one's mind	4	1.6
The advantages of orthodontics or jaw surgery	Chewing functional improvement	27	11.1
	Facial contour shrink	68	28.0
	Pronounced functional improvement	8	3.3
	Confidence rising	68	28.0
Side effects of jaw surgery	Aesthetic promote	72	29.6
	Facial muscle paralyse	100	41.2
	Sleep Apnea	47	19.3
	Nose blurring	12	4.9
	Jaws sensory loss	42	17.3
To place a non-therapeutic procedure	Postoperative bleeding	42	17.3
	General Dentistry	10	4.1
	Plastic Surgery	37	15.2
	General Hospital	25	10.3
	Calibration professional dental	171	70.4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양악수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부담’이 13.2%, ‘수술 후 부작용’이 7.8%로 나타났다. 교정 또는 양악수술의 장점은 ‘심미증진’ 29.6%, ‘안면윤곽 축소’ 및 ‘자신감 상승’이 각각 28.0%로 나타났고, 양악수술의 부작용은 ‘안면근육마비’ 라고 응답한 경우가 41.2%로 가장 많았으며, 비 치료 술식을 받는 병원은 ‘교정전문치과’가 7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연구대상자의 비 치료 술식의 보편화에 대한 인식도

비 치료 술식으로서 양악수술의 보편화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은 ‘부정적이다’가 37.9%로 ‘긍정적이다’ 21.4%보다 많았고, 이 중 양악수술의 보편화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자신감회복으로 사회생활의 긍정적인 영향기대’ 14.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치료목적이 아닌 비 치료 술식을 받을 의사여부는 ‘생각해 본 적 없다’ 60.9%, ‘의사는 있으나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2.8%로 나타났다. 또한, 양악수술을 한 연예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가 30.0%로 많았고, ‘외모지상주의가 비 치료 술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정 또는 양악수술의 정확한 방법 및 목적의 지식정도는 ‘대략 알고 있다’ 39.1%, ‘들어본 적 있다’가 17.3%로 각각 나타났다(Table 4).

3.5. 연구대상자의 비 치료 술식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도

비 치료 술식에 대한 치료경험에 따른 인식정도는 치료 경험이 없는 대상자에서 양악수술의 보편화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21.0%, ‘부정적’ 34.9%으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긍정적’ 22.9%, ‘부정적’ 50.0%로 나타나 경험이 있는 경우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정 또는 양악수술의 정확한 방법 및 목적 에 대한 인식정도는 치료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12.5%가, 경험이 없는 경우의 8.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치료경험이 있는 경우 77.1%, 없는 경우 70.3%는 ‘외모지상주의가 비 치료 술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Table 4. The study group of non-therapeutic procedure for recognition

Variables		N	%
Recognized for Artists jaw surgery	Would	45	18.5
	Would like to see counseling received	73	30.0
	I do not want to	59	24.3
	Personality seems to have disappeared	43	17.7
Recognition for the universalization of jaw surgery	Etc.	43	17.7
	Is positive	52	21.4
	Is negative	92	37.9
Reason to think positively jaw surgery common	Do not you ever think about	99	40.7
	Expect a positive impact on social life, confidence recovered	34	14.0
	Jaw surgery-related medical technology improvement	5	2.1
	Improve the stability of the future jaw surgery	6	62.5
Receive Idea whether a non-therapeutic procedure for non-therapeutic purposes	Immediately caught wrong-known technique of commonsense opportunity	7	2.9
	Positively considering	26	10.7
	Idea, but guard problem	31	12.8
	Idea, but side effects	38	15.6
The impact of non-therapeutic procedure in appearance supremacy	Do not ever think	148	60.9
	Have	174	71.6
	Not	7	2.9
	I do not know	35	14.4
Calibration or jaw surgery in the exact manner and purpose of recognition	Not interested in	27	11.1
	Know exactly what is	23	9.5
	Roughly know	95	39.1
	Ever heard	42	17.3
	No idea	38	15.6
	Not interested in	45	18.5

Table 5. Degree of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subjects of non-therapeutic procedure

Variables		Treatment-experienced		전체	p-value
		Yes	No		
Recognition for the universalization of jaw surgery	Is positive	11(22.9)	41(21.0)	52(21.4)	.079
	Is negative	24(50.0)	68(34.9)	92(37.9)	
	Do not you ever think about	13(27.1)	86(44.1)	99(40.7)	
Orthodontics or jaw surgery in the exact manner and purpose of recognition	Know exactly what is	6(12.5)	17(8.7)	23(9.5)	.082
	Roughly know	24(50.0)	71(36.4)	95(39.1)	
	Ever heard	10(20.8)	32(16.4)	42(17.3)	
	No idea	4(8.3)	34(17.4)	38(15.6)	
	Not interested in	4(8.3)	41(21.0)	45(18.5)	
The impact of non-therapeutic procedure in appearance supremacy	Have	37(77.1)	137(70.3)	174(71.6)	.689
	Not	1(2.1)	6(3.1)	7(2.9)	
	I do not know	7(14.6)	28(14.4)	35(14.4)	
	Not interested in	3(6.3)	24(12.3)	27(11.1)	

p > .05

Table 6.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major subjects in a non-therapeutic procedure for recognition

Variables		Majoring presence		Total	p-value
		majors	Non-majors		
Recognition for the universalization of jaw surgery	Is positive	33(25.6)	19(16.7)	52(21.4)	.076
	Is negative	41(31.8)	51(44.7)	92(37.9)	
	Ever thought about not	55(42.6)	44(38.6)	99(40.7)	
Orthodontics or jaw surgery in the exact manner and purpose of recognition	Know exactly what is	9(7.0)	14(12.3)	23(9.5)	.001***
	Roughly know	44(34.1)	51(44.7)	95(39.1)	
	Ever heard	19(14.7)	23(20.2)	42(17.3)	
	No idea	21(16.3)	17(14.9)	38(15.6)	
The impact of non-therapeutic procedure in appearance supremacy	Have	84(65.1)	90(78.9)	174(71.6)	.070
	Not	6(4.7)	1(0.9)	7(2.9)	
	I do not know	22(17.1)	13(11.4)	35(14.4)	
	Not interested in	17(13.2)	10(8.8)	27(11.1)	

*** p<.001

3.6. 연구대상자의 전공유무에 따른 비 치료 술식에 대한 인식도

전공유무에 따른 비 치료 술식에 대한 지식정도는 양악수술의 보편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은 ‘전공자’ 31.8%, ‘비전공자’ 44.7%로 나타났고, 외모지상주의가 비 치료 술식에 미친 영향은 ‘전공’ 65.1%, ‘비전공’ 78.9%로 각각 비전공자 그룹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정 또는 양악수술의 정확한 방법 및 목적에 대한 인식은 ‘전공’ 34.1%, ‘비전공’ 44.7%로 비전공자 그룹이 조

금 더 높게 대충알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1)(Table 6).

3.7.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비 치료 술식 시행 이유와 인식도

성별에 따른 비 치료 술식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안면심미개선”의 경우 남학생 32.5%, 여학생 49.6%로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지상주의가 비 치료 술식에 미친 영향”의 경우도 남학생 56.7%, 여학생 86.2%로 각각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7.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subjects in a non-therapeutic procedure for recognition

Variables		Gender		Total	p-value
		Male	Female		
Reason why you think this non-therapeutic procedure	Family and friends of the recommendations	16(13.3)	13(10.6)	29(11.9)	.026*
	Treatment subjects because	12(10.0)	7(5.7)	19(7.8)	
	Facial aesthetic improvement	39(32.5)	61(49.6)	100(41.2)	
	Etc.	53(44.2)	42(34.1)	95(39.1)	
The impact of non-therapeutic procedure in appearance supremacy	Have	68(56.7)	106(86.2)	174(71.6)	.000***
	Not	7(5.8)	0(0.0)	7(2.9)	
	I do not know	24(20.0)	11(8.9)	35(14.4)	
	Not interested in	21(17.5)	6(4.9)	27(11.1)	
Orthodontics or jaw surgery in the exact manner and purpose of recognition	Know exactly what is	10(8.3)	13(10.6)	23(9.5)	.020*
	Roughly know	37(30.8)	58(61.1)	95(39.1)	
	Ever heard	19(15.8)	23(18.7)	42(17.3)	
	No idea	25(20.8)	13(10.6)	38(15.6)	
	Not interested in	29(24.4)	16(13.0)	45(18.5)	

* p<.05, *** p<.001

($p < .001$), 교정 또는 양악수술의 정확한 방법 및 목적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 30.8%, 여학생 61.1%이 '대략 알고 있다'라고 응답 하였고 남녀 모두 교정 또는 양악수술의 정확한 방법 및 목적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Table 7).

4. 총괄 및 고안

오늘날 외모는 매스미디어와 의학의 발달로 아름다움의 기준이 균일화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외모에 투자하고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비 치료 술식으로 교정 또는 양악수술을 생각하는 이유로는 '아름다워지고 싶어서'가 41.2% 그리고 '기타(취업준비)' 39.1%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사회생활에서 심미적인 외모의 중요성이 나타났으며, 이등¹¹⁾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기준이므로 성별, 연령 및 문화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도 거론되고 있다¹²⁾. 기¹³⁾는 교정치료에 의한 안모개선이 개인의 자아 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남녀 모두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남녀 모두 교정 또는 양악수술이 안면 심미의 개선을 통한 자신감 회복으로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기대한다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교정 또는 양악수술의 장점으로 '심미증진' 29.6%, '안면윤곽축소' 및 '자신감 상승'이 각각 28.0%로 나타났으며, 턱 교정 수술 치료 후 남녀 모두에서 심미성을 위주로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¹⁴⁾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대상자 중 비 치료적 술식의 경험률은 19.8%였고, 31.7%는 비 치료적 술식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하고 싶다고 하였고, 양악수술을 하지 못한 이유로 비용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자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이러한 술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시술에 대한 정보 부족과 수술 후 부작용, 경제적 능력 및 주변 사람들의 지식 등에 대한 우려로 망설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정치료 또는 양악수술의 정확한 방법 및 목적에 대한 지식은 대상자의 대부분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략 알고 있다' 39.1%, '들어본 적 있다' 17.3%인 반면, '외모지상주의가 비 치료 술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1.6%로 나타나 교정 또는 양악수술의 지식정도는 낮은 반면 술식 결과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미적인 술식으로 알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치아교정 또는 양악수술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알리고 올바른 정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보건관련 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전공유무에 따른 비 치료 술식에 대한 인식도는 양악수술의 보편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은 전공그룹의 경우 41명(31.8%), 비전공그룹 51명(44.7%)로 비전공 그룹이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지상주의가 비 치료 술식에 미친 영향도 전공그룹 84명(65.1%)보다 비전공그룹 90명(78.9%)에서 높게 나타났으나¹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교정 또는 양악수술의 정확한 방법 및 목적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전공그룹에서 44명(34.1%), 비전공에서 51명(44.7%)이 '대략 알고 있다'로 각각 응답한 바, 이러한 결과는 각 그룹 전공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대해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설문 의 한계로 전공자 그룹이 비전공자 그룹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난 것은 전공을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지식과 학습을 기준으로 응답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 치료 술식인 양악수술을 하고 싶은 이유로 "안면 심미 개선"이 남학생 32.5%, 여학생의 경우 49.6%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지상주의가 비 치료 술식에 미친 영향 여부에서도 남학생 56.7%보다 여학생 86.2%로 '영향을 미쳤다'에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¹⁵⁾, 외모를 가꾸는 여학생에서 외모지상주의가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리기술의 발달과 마스크 및 방충매체의 의료 광고가 직·간접적으로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과 지식을 변화시키고 관심을 증가시키는 역할과 치료 이외의 비 치료목적의 수술에 대한 역기능의 기회 또한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식의 변화는 비 치료 술식을 함으로써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향상은 사회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교정 또는 양악수술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술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의 31.7%가 양악수술을 원하고 있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외모가 사회생활과 개인적 만족감에 중요한 요소로 차지한다는 인식하에 교정 및 양악수술 등이 부정교합 치료 및 안모개선 목적 이외의 사유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비 치료적 성형술식의 오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원칙적으로 부정교합, 양악돌출 및 주걱턱 등을 가진 대상자들의 치료 목적임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대상자를 일부지역의 한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후 대상

자와 지역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2011년 10월 4일부터 10월 16일 까지 2주일간 에 걸쳐 G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치위생학과에 포괄 치위생 관리 및 처치를 위하여 방문한 대학생 243명을 대상으로 비 치료 술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치아교정이나 양악수술에 대한 시술방법 및 치료 목적 등의 인식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연구대상자의 전공자 그룹은 129명(53.1%), 비전공자 그룹은 114명(46.9%)이었으며, 남학생 66명(55.0%), 여학생 63명(51.2%)로 조사되었다.

2. 비 치료 술식으로 교정 또는 양악수술을 생각하는 이유로는 ‘아름다워지고 싶어서’가 100명(41.2%), 양악수술 희망여부에서는 ‘하고 싶다’가 77명(31.7%)등으로 많았으며, 양악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안면근육마비’ 100명(41.2%)으로 나타났다.

3. 비 치료 술식에 대한 인식정도는 양악수술의 보편화에 대해 ‘부정적’ 92명(37.9%)으로 나타났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그 이유로 ‘자신감회복으로 사회생활의 긍정적인 영향기대’ 34명(14.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174명(71.6%)는 ‘외모지상주의가 비 치료 술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공유무에 따른 비 치료 술식에 대한 지식정도는 전공 44명(34.1%)과 비전공 학생 51명(44.7%) 모두에서 대략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5. 비 치료 술식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남학생 39명(32.5%), 여학생 61명(49.6%)에서 ‘안면 심미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의 68명(56.7%), 여학생의 106명(86.2%)이 ‘외모지상주의가 비 치료 술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p < .05$).

이상의 비 치료 목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치아교정과 양악수술에 대한 일부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결과로 외모개선 목적만이 아닌 본연의 치료 목적을 위한 올바른 치료 술식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 문헌

1. Lee GY. A Study on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Sociality – Focus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Student Life Research Institute of SangMyung Univ 1998; 11:0-18.

2. Vancouver system[Internet]. Wikipedia; [cited 2012 Sep 12]. Available from: [http://ko.wikipedia.org/wiki/Orthognathic Surgery](http://ko.wikipedia.org/wiki/Orthognathic_Surgery).

3. Lee JG. Orthognathic surgery – Facial bone contouring surger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Orthodontic 2002;1(2):70-76.

4. Jeong MH, Nam IW. A Clinical study of patients' satisfaction and personality change after Orthognathic surgery. J Korean Acad Oral Maxillo Surg 1992;18(2):19-27.

5. Jensen SH. The Psychosocial dimensions fo Oral and Maxillifacial Surgery: A clin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J Oral Surg 1987;36(6):447-453.

6. Albino JE, Tedesco LA. Esthetic need for Orthodontic Treatment. In Melsen B, editor: Current controversies in orthodontics. Chicago: Quintessence, 1991.

7. Rutzen SR. The social importance of Orthodontic rehabilitation: report of a five year follow-up study. J Health Soc Behavior 1979;14(3):223-240.

8. Available from: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03042501013025129003>.

9. Jeon YH. Men – would not be a Social disadvantage molding. Naeil Shinmoon 2004;8:16-17.

10. Kim JK. Gift to youth to parents – plastic surgery new filial bond products. The Dong-A Ilbo 2002;3:1-51.

11. Lee K, Lim HS, Chang KS. Status of Perceptions for Appearance and Cosmetic Surgery among University Freshmen. DongGuk J Medicine 2006;13(1):27-26.

12. Langlois JH, Roggman LA, Casey RJ, Ritter JM. Infant preferences for attractive faces. Dev Psychol 1987;23(3):363-369.

13. Kee YK. Influence of Orthodontic Facial Improve-

- ment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ster's thesis]. Gwangju: Univ. of Chosun, 2000.
14. Jung SY. The Influence of Orthognathic Surgery for
Facial Improvement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Body Cathexis[master's thesis].
Inchon: Univ. Gachon, 2010.